

조형언어 해독은 진리의 문에 이르는 '제3의 길'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대좌(臺座), 수미좌(須彌座), 수미단(須彌壇)—불탁(佛卓), 불단(佛壇) ㉔



위대한 예술작품은 위대한 경전
(미술사 용어 바로잡기) 연재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모두 논문으로 써야할 큰 주제들이다. 그만큼 용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많은 용어들을 논문으로 쓸 수 없으므로 비록 짧은 글로나마 바로잡고 있지만, 하나의 작은 소논문(小論文)의 성격을 지닌다. 그릇된 용어를 바로잡으려면 충분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이란 무릇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반야심경)은 극히 짧음에도 다른 긴 경전에 못지않으며 불교사상의 중요한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재는 단지 틀린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한국미술문화의 올바른 잡아가고 있으나, 더 나아가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즉, 법계(法界)에 이르는 길고 긴 역정(歷程)이라 하겠다.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단지 용어가 아니고 각각 절대적 진리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용어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바른 여러의 본질과 법계의 올바른 본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사에서 혁명적이라 할 선종(禪宗)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가치를 드높이 들고 있으나 인간은 문자언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경전과 참선을 병행하는 대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 고려 시대의 고승 지눌(知訥)을 알고 있다. 당시의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의 대립으로 극심하던 때, 교종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선종의 가르침을 섭렵하였고, 그 합일점과 조화를 모색하여 꾸준한 구도 끝에 '마음이 부처'라는 선종의 종지에 의거하여 먼저 깨닫고

수행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마침내 그의 뜻이 이어져서 선종과 교종을 조계종에 통합하여 불교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지눌이 열반에 들자 왕은 '보조국사(普照國師)'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보조국사'의 보조(普照)는 어디든 평등하게 비추는 햇빛의 의미여서 바로 비로자나(毘盧遮那)라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조형언어를 해독하면서 조형미술에서 문자언어나 불립문자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조형미술은 단지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나 장식이 아니라 아니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조형언어를 깨닫게 되어 세계의 보편적인 조형언어를 해독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형미술품은 여려나 보살의 현현(顯現)'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펴낸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펴냄)이라는 저서는 고려시대의 수월관음 그림 한 편으로 수월관음의 본질을 밝힌 것이어서,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은 하나의 위대한 경전'이라고 감히 선언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형언어에서 조형문법을 찾아낼 수 있고 새로이 해석할 수 있고 새로이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연재는 바로 조형언어를 해독해 가면서 여래를 찾아가는 길고 긴 역정(歷程)이라 할 수 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이라는 책은 19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였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소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독하고 유혹과

미혹이 많은 어려운 길이라고 믿었다.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적다. 이에 대응하여 이 연재는 <법계역정>(法界歷程: 법계에 이르는 여정)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데, 조형언어를 해독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 궁극의 길은 고난의 길이나 좁은 문이 아니고, 환희의 길이며 넓은 문임을 알았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여래가 계시는 법당으로 가려면 수많은 문(門)을 거쳐야 한다. 여래를 만나려면 수많은 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수많은 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문들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여래를 만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용어(用語)라는 것은 문(門)과 같다.

옛 예술가들은 고승들에 못지않게 조형미술에 고귀한 진리를 조형언어로 알차게 담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조형미술을 온갖 오류로 더럽혀 왔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 틀린 용어들인 악마 파순들 때문에 올바른 접근이 차단되어 왔으며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형미술을 올바르게 해독하여 '진리에 이르는 제3의 길'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려한다.

대좌·연화대좌·수미좌·수미단이 아니다
여래가 정좌하여 앉거나 서 있는 자리를 사람들은 단지 대좌(臺座)라고 하거나 수미좌(須彌座)라 한다. 공양물을 놓기 위해 좀 넓으면 수미단(須彌壇)이라 한다. 대좌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연화대좌(蓮花臺座)이나 이 용어도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용어이다. 그런데 대좌가 수미산을 본 딴 모양이라는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미좌나 수미단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이 용어는 일본 식민지시대에 들어온 말이다. 즉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으며 제석천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 여래가 머물러 있지 않았을뿐더러 그 정상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수미산은 불교 이전부터 있던 인도 본래의 우주관의 산물인데 그 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불교의 모든 것으로 설명하려니 그 오류가 산처럼 쌓여가는 것이다. 문자언어로 쓰여진 모든 이야기에는 오류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까지의 길은 반야의 길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여래가 앉거나 서있는 자리를 대좌라고 부르는 것은 여래를 바라보고 사람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여래가 앉아 계시는 자리는 대좌나 수미좌나 수미단이 아니라, 여래가 영기화생(靈氣化生)하는 극적인 광경을 보여주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자리를 잘못 부르고 있거나 기록이 있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대부분의 용어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기에 필자가 속고 끝에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용어들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보편적 방법론은 바로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이다. 그 이론이 정립되지 수많은 용어들의 오류가 수면 위로 또 올랐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다. 고대문헌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록은 조형미술이 만들어진 다음, 훨씬 후대에 잘못 기록된 것이 많다.

여기 경주 황복사 석탑에서 발견한 금제 여래입상이 있다. 692년 이전에 제작한 삼국시대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높이는 14센티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 불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가운데 하나다. 자, 이 여래상은 단지 대좌에서 계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고 연화대좌위에 서 계시는 것도 아니다. 수미좌나 수미단에서 계시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래는 우리에게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경주 황복사 석탑에서 발견한 '금제 여래입상'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호박에 꽃이 피면 영양도 만점



호박꽃 만두

△재료(4인 기준)

- 호박꽃, 두부 50g, 마 100g, 표고버섯 3장, 홍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 초간장 - 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감식초 1/2큰술.

△만드는 법

- ① 호박꽃은 잎이 살짝 벌어진 것을 준비하여 얇은 소금물에 헹구어 씻어 물기를 뺀다.
- ② 소에 들어갈 두부는 면보에 물기를 꼭 짰 다음 곱게 으깨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 ③ 표고버섯, 청양고추는 곱게 다진다.
- ④ 마는 강판에 곱게 갈은 후 소금, 참기

름으로 간을 맞춘 후 젓가락으로 많이 저어 부드러운 기포가 형성되도록 한다.

- ⑤ 준비된 소는 모두 섞어 젓가락으로 섞어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한다.
- ⑥ 호박꽃에 소를 채워 넣고 김으로 찜술에 5분 정도 쪄낸 다음 초간장 곁들여 낸다.

애호박 표고버섯 구이

△재료(4인 기준)

- 애호박 1/2개, 표고버섯 10장, 홍고추 1/2개, 청고추 1개
- 양념장 - 국간장 1큰술, 매실액 2큰술, 다진청양고추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들기름 1큰술



△만드는 법

- ① 애호박은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수분이 적당하게 빠지면 물기를 닦아내고 프라이팬에 구워낸다.
- ② 버섯은 크기에 따라 2-3등분 한 후 팬

에 볶아 색이 나고 쫄깃한 질감이 날 때까지 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③ 양념장은 분량대로 섞는다.
- ④ 구운 애호박 위에 표고버섯과 양념장을 올려 낸다.

식용 호박꽃은 당뇨 예방

호박은 우리네 밥상의 단골 재료중 하나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이용된다. 반면 호박꽃으로 요리를 해 먹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흔히들 못생긴 사람을 호박꽃에 비유하지만 순박하고 은은한 그 모습은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는 것처럼 좋은 맛과 효능도 지니고 있다.

호박은 카로틴이 풍부해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므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박꽃은 달고 따뜻하며 독이 없고 소변에 이롭고 당뇨에 도움이 된다. 호박꽃 가루 속에는 35%의 단백질과 22종의 필수 아미노산, 12종의 비타민, 16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그 밖에 사람의 생명현상에 불가사의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호박꽃잎 자체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다.

호박꽃에 소를 채워 넣어 찜서 만두로 먹어도 좋고, 튀김옷을 입혀 튀기거나 구워 먹어도 좋다. 단 요리시 손질 할 때 마지막에 얇은 소금물에 헹구어 고운 색을 유지할 수 있다. 소를 만들 때 젓가락으로 많이 저어 기포가 형성되도록 해야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에 호박꽃을 말려 볶은 후 차로 이용해도 좋다.



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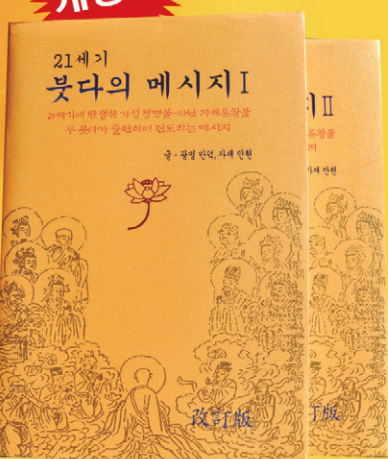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물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